

OECD/DAC 거버넌스네트워크 회의

제 14차 DAC/GOVNET 전체회의가 파리 OECD본부에서 개최되어 활동원칙, 2011/2012년도 신규 활동 주제 선정 등을 논의한 바, 그 내용을 아래에 기술함.

I. 회의 개요

- 회의명 : 제14차 DAC/GOVNET 전체회의 (14th Meeting of the DAC Network on Governance)
- 일시 및 장소 : 2010년 12월 9일~10일 / 파리 OECD 본부

II. 주요 내용

1. 선택과 집중원칙에 따른 활동

2010.3월부터 진행된 GOVNET Reflection Exercise를 통해, 네트워크 활동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국제개발환경 하에서 명확하고 차별화된 성과를 나타내는 것이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향후 GOVNET 활동을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하여 원조규범 생산 및 비교우위 확보 등에 맞추기로 함.

2. 2011/2012년도 신규 활동 주제 선정

2011-12 신규 활동주제로 조세, 인권, 반부패를 선정하고 현재 각 소관 TT별로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III. 평가

- 최근 GOVNET 활동의 초점은 수원국 거버넌스 제고에 적합한 개발원조 modality 및 성과사례 발굴 등에 있는 바, 우리나라도 관련 실적 및 사례 등을 정리하여 향후 논의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2011-12 네트워크 3대 핵심의제로 제시된 조세, 인권, 반부패 이슈와 관련된 개발원조의 사업형태 및 접근법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해 타 공여국들의 사례를 연구할 필요가 있음.
- UNECA(UN 아프리카 경제이사회)에서는 PD/AAA상의 상호책임성 진전상황에 대한 수원국측 시각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 바, HLF-4에서의 수원국 입장을 예측하는데 동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수원국의 주인의식 및 책임성 제고를 저해하는 공여국 주도의 원조관행 (수원국 재정시스템에 미반영된 원조 등)이 지속되고 있음”
 - “국가빈곤감소전략(PRSP) 및 정부예산의 형성/운영과정에 의회, 정당, 시민사회 등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구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지 않아 개발정책의 적절성 및 균형성 뿐 아니라 정부의 책임성도 확보되지 못함”